

간류지마 섬

이 작은 무인도는 전설적인 무사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미야모토 무사시(?~1645)가 목숨을 걸고 싸운 유명한 결투 장소로 역사, 문학, 전승 속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이 섬에는 전 세계에서 무도인과 사무라이 애호가들이 찾아옵니다.

결투의 서곡

이 전설적인 결투에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생몰년 불명)라는 두 명의 검술의 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대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아침 무사시는 해변에서 사사키 고지로와 결투를 벌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간류’라는 별명을 가진 사사키 고지로는 에치젠국(현재의 후쿠이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조류(검술 유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고지로는 주무기로 삼은 긴 칼(노다치)로 스승의 실력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후에 도장을 열어 자신의 유파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결투의 날 고지로는 ‘빨래 건조장대(모노호시자오)’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 90cm가 넘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고지로의 검술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여 날아오는 제비를 베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미야모토 무사시는 하리마국(현재의 효고현)에서 검의 달인인 신덴 무니(무니사이라고도 불림, 생몰년 미상)의 슬하에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582년이나 1584년에 태어났으며, 처음으로 결투를 벌인 것은 13세 때였다고 합니다. 고지로와는 성격도 스타일도 전혀 달랐으며, 무사시는 유파에 속하지 않았고 스승도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대전 상대를 찾아 여행을 했으며, 거칠고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28세 때 무사시는 고지로의 실력을 알게 되었고 검의 달인과 힘을 겨뤄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무사시는 당시 고쿠라(후쿠오카현)에 도장을 열었던 고지로에게 인편으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설이 분분한 결투 스토리

두 사람의 결투 이야기는 수 세기 동안 몇 번이나 구전되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버전이 등장했고, 세부 내용이 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지만, 무사시가 몇 시간이나 지각하여 고지로를 격분시켰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버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동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책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사시는 거세고 복잡한 조류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배를 타고 섬에 상륙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사시는 배의 노를 깎아 목검을 만들었고, 고지로는 적이 그런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격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무사시는 이 즉석에서 만든 칼로 고지로의 머리뼈를 부수었다고 적혀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또 무사시가 은밀히 제자들을 결투에 데려와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기술도 있습니다. 결투에서는 고지로가 패했지만, 그 당시의 나이에 대해서는 18 세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50 세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와 유산

두 사람은 마침내 대결을 펼쳤지만, 결투는 아주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드넓은 모래사장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빛나는 칼. 그동안 수많은 상대를 무찌른 고지로의 필살기 ‘고세쓰(호랑이 배기)’가 사용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로의 기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지로는 방랑 중이던 예의 없는 무사시에게 순식간에 패배했습니다. 고지로가 모래 위에서 숨을 거두자 무사시는 빠르게 떠났고 일본 최고의 결투 전설에 새로운 장을 남겼습니다.

간류지마 섬에서 벌어진 결투는 4 세기가 지난 지금도 책과 영화, 만화,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사시가 남긴 유산은 막대합니다. 그의 수행과 철학에 관한 전서인 『고린노쇼(五輪書, 오륜서)』는 비즈니스 리더, 무도인,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팬을 매료시킨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패배했다고는 하나 사사키 고지로는 지금도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욱 위대한 검객이었고, 심리전과 책략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사시는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날 간류지마 섬을 찾는 사람은 이 전설 속 대결의 진상에 대해 자유롭게 고찰해 봅니다. 섬의 동쪽에는 두 사람의 결투를 재현한 조각상이 있어 이 전설의 대결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